內式顧問 連袂辭職!

리왕직과의견충돌로 그內幕은複雜多端

고창덕궁뎐하 국장의내식 고문(內式顧問)으로 추천된 박영효 후(朴泳孝侯)외십여인은 리왕 직(李王職)의 처사와 의견이충 돌되여 이십팔일에 회합협의한 결과사퇴하기로 결의하고 리왕 뎐하께 그연유를아뢴후 리왕직 장관에게도 사직하는 통지서를 보내엿다는데 그내용에는 여러 가지복잡한사정이만타더라

國葬委員會 수상관뎌에열어

창덕궁뎐하 국장에관한 준비위 원회(準備委員會)는이십팔일오 전 아홉시반부터 영뎐뎡 (永田 町)수상관뎌(首相官邸)에서 개[illegible] 더는 장곡천서긔관(長谷川書記 官)과조선총독부로부터는 산본 사무관(山本事務官)과대장성청 목문서과장(靑木文書課長)등제 씨가 집합하야 국장예산과기타 에관하야 협의한후 뎡오에산회 하엿더라(동경뎐)

因山當日에 軍艦을特派

창덕궁뎐하 인산당일에는 인천 (仁川)에군함(軍艦)한척을특파 하야 동함대승조원 (乘組員)일 개대대(一個大隊)를의장병 (儀 仗兵) 에참렬식히기로 내뎡하 고총독부 관계당국과 [illegible]

合)에서는 봉도의정성을다하기 위하야 이십팔일부터 삼일간휴 업하기로하엿더라

中國人奉悼

시내 각처에산재한 중국상인(中國商 人)들은 창덕궁뎐하께서 승하 하섯다는 놀라운소식을듯고 중 국 국긔를집집마다 달고조의를 표하엿더라

高宗太皇帝當時보담 儀仗兵員倍增?

조선주찰군대가늘은새닭

인산당일의의장병(儀仗兵)에대 하야는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 令部)와륙군(陸軍)사이에 교섭 중인바 대톄로는 고종태황뎨 (高宗太皇帝)인산당시와표준을 조칠모양이로되 그때사정과 다 른뎜이 한두가지가아니니 그당 시에는 십구사단의사령부(司令 部)가룡산에잇섯고 칠십칠과칠 십팔련대가 십구사단에 부속되 엿스며 긔병(騎兵)과 포병(砲 兵)은각각일개중대만 잇섯슬뿐 이오 또룡산이외로는 데사십려 단(旅團)만주찰하얏슬뿐아니다 룡산에잇는부대(部隊)에뎐조선 [illegible] 명밋게되지안헛는데시방 하면 량개사단이 치중병 [illegible] 공병이모다완비한터임 [illegible] 종태황뎨당시의 표준을 [illegible] 어도 륙천명이상에달 [illegible] 뎡되지안헛스나 그러나 고종태 황뎨당시는 별항과사와가티 삼 천팔백명의 의장병이 장의자소 인훈련원(訓練院)을향할때에그 선봉(先鋒)은벌서식장에도착하 엿스되 그후부대는 아직것대한 문(大漢門)안을다나오지못하얏 는데 금번식장도 만일훈련원이 되면 돈화문으로부터 훈련원싸 지의거리는더욱갓갑게되겟슴으 로이컨보다배이상의의장병을엇 더케 참렬케하엿스면 조흘는지 가 매문데이다 이와가튼국장의 의장병은 륙군례식이아니오 당 국에서 행할것임으로 당국에서 도무슨조령(條令)을떠둥해야조 흘는지 몰라서 머리를알는중인 데 조선사령부의 의향을드르면 대체 고종태황뎨 국장시와가티 룡산부대(龍山部隊)전부와조선 에잇는부대의 대표부대를 전부 참렬케하리라더라

警戒去益嚴重

이십팔일밤은전날밤보다도더욱엄밀하다

이십팔일오후부터경찰당국에서 는 경찰부안에서 긴급간무회의 를열고 경계를 더욱엄중히하기 로하야 디방경찰서에서 칠십명 의응원을밧고 경찰부와 경찰관 강습소와및시내각경찰서에서삼 백명의 경관을출동케하야 종로 일대에 배치케하고 다시경무국 에서는 권총배자두눌 일부경관 에게주어 만일을 경제하게되엿 는데 따라서당일밤에는 지난밤 보다도 더욱경계가 엄밀하야돈 화문압대로에는 일체통행을 금 지하엿더라

國葬場은 訓練院에서거행하다

고창덕궁뎐하의 국장은 순조선 식으로 경성훈련원에서 거행될 터이라는바 국장에관한 축뎡은 재가가잇는대로공포하리라더라 (동경뎐)

二十九日에는 大斂과 成殯

선비면이나려최종의식

[illegible]

精米業者奉悼

[illegible]

參列이問題

[illegible]

廬幕에서御徹夜

왕비뎐하의덕혜옹주도

[illegible]

祭亭은停止

[illegible]

立銘旌遲延

근친과총독부의 의견이달름으로 [illegible] 이십칠날에행하려던소렴(小斂)은 당일에행하게되엿더라

國葬費用決定

십만원으로결뎡되엿다

[illegible]

(상) 재궁을모시고돈화문을들어가는광경

(하) 재궁을선정뎐에배진하는광경

全國各都市의撤市奉悼

鐵山 [illegible]

新高山 [illegible]

[illegible] 지하엿더라

炭夫一名燒死

[illegible] 잇섯는데불행히지난이십 [illegible] 산회가일어나서사긔가일 [illegible] 동수의탄광에서불이붓게 [illegible] 으로장치하야돈녹탄에불 [illegible] 이는도록 숫굴문을 닷고자 [illegible] 충련하을누름쓰고 숫굴 [illegible] 달려드럿다가 사정업시 [illegible] 는불이 그사람에게 침범 [illegible] 나 몽농한 연긔가운데서 [illegible] 다가 비참이 타죽엇다는 [illegible] 는 차젓스나 숫과가티탄 [illegible] 은잡아볼수업섯다더라 (산청)

吊問飛行中 墜落慘死

로국 왈소」에서

[illegible] (紡濃露國) 륙군항공계 [illegible] (先驅者) [illegible] 씨의장례는이십칠 [illegible] 『[illegible]』에서 성대히 거행하엿 [illegible] 장례에참렬한 이십일며 [illegible] 비행기가조문비행(吊問飛行)을하든중 그중일대는오백 척(尺)상공에서 다른비행긔와 충돌되야비행긔와가런여러거조 종사(操縱士)와동승자(同乘者) 한명은즉사하고 또한다른비행 긔조종사한명은안젓든자리에서 써러저참사하엿는데 시체는 더 욱에깁히파무쳐엿다더라 (왈소면보)

漢川金組紛糾

유실금일천원문데로

지난이십오일 평남평원군 한천 금융조합(平南平原郡漢川金融 組合)에서는 데칠회뎡긔총회를 개최하엿섯는데 예뎡한 총회의 순서를밟하 진행중 금융조합뎡 계사십칠조에의한 승인의 건에 대하야 말성만턴 유실금일천원 을 가불금에편입하고 일반조합 원에게 내막에대한 설명이업고 책임은 리사에게잇스나 현금으 로 지불할수도업고 긔한도뎡할 수업다하며정회함으로일반조합 원은리사를불신임하는동시에그 책임자를 걸발하자하야 일반조 합원은 즉시 집행위원을 선거 하고 집행위원회에서는 이사 건을 철뎌히됴사하야 감독관령 에전달하는 동시에 최후수속外 지 단행하리라하며 집행위원은 다음과갓다더라(평원)

啓周 朴宗化 金商秀 金炳鎬 鈴

仁川燐寸罷業 勝利就業

일체요구조건을 승인하야줌으로

인천부룡강리(仁川府龍岡里)조 선인촌주식회사 (朝鮮燐寸株式 會社)에서는 임금(賃金)감하문 데로인하야 남녀직공이 일제히 동맹파업(同盟罷業)을단행하고 뒤를이여서 소년 소녀직공 팔 백여명이 공고한 단결로 파 업을 계속하여 온다함은 긔 보한바와 갓거니와 지난이십 칠일에 비로소 공장주측으로부 터원체 요구조건을 승인하겟다 하는바 소년소녀 일백여명은깁 붐에넘치는 얼굴로 다시이십칠 일부터 취업하기로 하엿다더라 (인천)

鐵道自殺

경부선시흥근처에서 조선인남자한명이

이십칠일 오후두시십분경 데십 일렬차가 경부선 시흥 (京釜線 始興) 부근을 직행하든중 조선 인남자한명이 텰도선로에 뛰여 들어 그대로갈려 죽엇는데그원 인은자살인듯하며 주소와씨명 은목하됴사중이라더라

警官廿名慘害

결국총살되고말앗다고 伊太利에稀世兇賊

이태리(伊太利)『콜시카』를횡행 하던 희대의 흉뎍(兇賊)『로마 넷거』는 지난이십륙일 경관대 의추격으로 즉시총살 되엿는데 이자는 경관 이십명을죽이고말 다를쓰레 몽모도건 수명을죽인 흉한이라더라(나우엔뎐보)

中毒者의末路

안해를차저갓다가 배척밧고오다상망

원적(原籍)을 영일군 포항중뎡 (迎日郡浦項仲町)사백사십번디 에둔 천문길(千文吉)(三)은 본 래『모히』중독자로 자긔의 잇든 재산을 다탕진하고 그동안대구 감옥에서 륙개월간 복역하엿 는데 금번에만긔출감하야 고 향에 도라와서본즉 사랑하는자 긔안해가 업는지라 사방으로탐 문한결과 영덕군남산면(盈德郡 南山面)근처에잇다는 소문을듯 고 지난이십일에 그곳싸지차저 왓는데 로중에오면서도 그원수 의『모히』를주사하엿스나당디에 도착하자주사약이떠러지고업서 그날저녁부터몸도고단한중사긔 안해를맛나서가자거니실타거니

數十尺高架에서 工夫二十名墜落

비계를매준줄이석너저서

목하공사중인일본웅본건설사무 소(熊本建設事務所)관내고려선 데일렬교(高麗線第一鐵橋)가설 상항을사진박기위하야이십륙일 오후세시경에 수십척의 놉히나 되는 비계를만들고 작업을계속 하던소원(所員)과공부(工夫)이 십명은 단난히매여노앗던 비계 의줄이 쓴허지며 전부미트로추 락하얏는데 이급보를드른 계관 은현장에 급행하야 대혼잡을이 루엇더라(웅본뎐)

棄屍事件公判

시데재감정을 변호사가신청

긔보한바와가티지난이월칠일에 함북경진부신암사동 (咸北淸津 府新岩四洞)에서 자긔처를목을 매여죽여서 다리미테 버린것 을 지난이십삼일에 청진디방법 원(淸津地方法院)에서공판을개 뎡하고 재판장은 심문을시작하 엿는데살인범김병식(金丙植)은 본처디에다가 자긔본처와 아이 와어머니를두고

다른사람 의처윤성녀

(尹姓女)를다리고 도망하야청진外 지와서 거주하고 김병식은온대 진(溫大津)방면에가잇는중윤성 녀는 다른간부(姦夫)와 작년팔 월부터 정을통하야오든중 간부 에게못된병이 전염되야 동십이 월경에 자긔가오기전에 수은제 (水銀劑)를사다홉인한후구감으 로하야 피(血)를토함으로 양산 목환(兩三日丸)이라는 약을먹 고죽엇다고 대답함으로

재판장은 비치가죽을벗

에다른사람은업섯느냐한즉자긔 와처밧게다른사람은업섯다고함 으로 시데는 엇재다리미테다가 버렷느냐고하매시데를버린것은 피를만히 흘림으로 원시다른곳 으로옴기라고 하엿다 함으로 그 려면누슨까닭으로 포항동(浦項 洞)에서가갓느냐고무르매 장사할 곳으로가라고 하얏다함으로 피 고의심리를 마치고 증인신문이 잇슨후적목변호사(赤木辯護士) 는 피고살해(殺害)로 말하면 의사(醫師) 감뎡서(鑑定書)에 의하야 파살이라고 하엿지마는 오나 수은(水銀劑)의 중독으 로나 죽지아니하엿는지 다시감 뎡을하야 달라고 신청하고증인 한명을 또불러달라는 신청을한 후재판장은 공판은차후로 연긔 한다선언하고 십이시경에 폐정 하엿다더라(청진)

後援會費안준다고 學生을毆打逐出

인천공보교의가혹한일 일반의비난이자못비등

인천공립보통학교(仁川公立普 通學校)에서는 얼마전에선임한 본뎐교장 (本田校長)이 온뒤로 로 수업료(授業料)를 증가(增 額)한外닭으로 일반의비난이자 못업지 아니햇섯는데 또한후원회 비(後援會費)를 미납(未納)하 엿다고 사뎨(師弟)간에 불상사 가낫섯다는데지난이십사일상학 전에당교생도 사학년이조(四 學年二組) 리원훈(李元勳)형 뎨를 담임교사가 호출하야멧달 분후원회비를 안가저왓다는구 실로 주먹으로 어린생도의쌤 을따리며 구타햇지하고 드듸 여 아모것도모르는 어린생도 를교뎡으로부터 축출을 식힘으 로그생도형뎨는 울며불며 한사 코 교뎡을못떠나겟다는 바극 히모자를 씌워초차보냇다하야 을연출하엿다는데 그래도 과어 일반사회인사와학부형(學父兄) 은물론하고일부교원과생도들사 이에여론이비등하다더라(인천)

長湍에發疹病

환자이십여명

지난십오일경에장단군진서면권 재리에사현동(長湍郡津西面田 [illegible])에서 『발진지부 스』가발생하야 환자가이십여명 에 달하얏다는데 당디경찰서에 서방역에 진력한결과 그다지만 연되지는 안는다더라(장단)

進行中列車에 돌을던저서

일대소동을이루어

이십칠일 오전열한시반경에 급 행데칠렬차 (急行第七列車) 가 경부선 (京釜線) 경산(慶山)과 대구(大邱)사이를 진행중 선로 외인편으로부터 돌을 던진자가 잇서서 류리창한장을 쌔트리엇 다는바 승객중에는 삽농객산뎐 (山田)『이도』가 안구(眼球)에 경상을바덧슴으로 즉시 응급수 당을 베푸는동시에 범인을엄탐 중이라더라

列車進行中 跳下負傷

목뎍디를부지중 지나치고놀라서

지난이십륙일 오후십이시 사십 이분발 게륙십삼호 혼합렬차가 경의선문산역(京義線汶山驛)과 장단역 (長湍驛)중간에잇는 털 교를 통과하든중 돌연승객한명 이떠러저 잡바짐으로 급행하든 렬차는 불시에뎡거하야 대소동 을 이루엇다는데 그자세한던말 을들으면 파주군주내면 봉암리 삼백십사번디 김충근(坡州郡州 內面烽岩里三一四番地 金忠根) (二八)이가 경성에서 문산역外 지 차표를사가지고오다가 목뎍 디인 문산역을경과하는줄 모르 고오다가 임진강텰교를보고 놀 라서 장단역外지가면 여하한문 데가잇슬는지 모름으로 차라리 중도에서 하차하는것이 상책이 라고생각하고 렬차가 급행함을 불고하고 나리다가 실수하야부 상하얏는데 불행중다행으로 귀 생명에는관계가업다더라(장단)

長興에小火

전남장흥 군읍신종뎡 상뎜창고(全南長興 郡邑申宗澈商店倉庫)에서는 지 난이십오일 오후십일시경에 불 이낫섯는데 즉시 발견하야진화 에노력한결과 손해는 업다는바 원인은 방금경찰당국에서 엄밀 됴사중이라고(장흥)

『도르고』에치어 小兒慘死

범인은현장에서잡혀 동대문경찰서에검속

고양군숭인면뎐농리 (高陽郡崇 仁面典農里) 최자근봉 (崔自斤 奉)(三)과 오바위(吳岩回)(三八) 두명은지난이십칠일오전열시경 에시외 신설리(新設里) 종방공 장(鐘紡工場) 뒤에서『도르고』 에흙을실고 지나가다가 그곳에 서노는 신설리백이십륙번디 오 일천(吳一千)의장남영환(英煥) 을치여 즉사케한후 최자근봉은 그대로 도주하라하는것을 부근 주민이 잡어다가 동대문경찰서 에넘기엿는데 동서에서는 두명 에대하야 목하엄중 취됴중이라 더라

國境婦人見學

데일회는무사완료

본사신의주지국(新義州支局)주 최의 국경부인견학단은 예뎡과 가티 지난이십사일에 단원십여 인이 일긔의관계로 신의주시내

八年前殺人强盜

안성경찰서에서톄포

경긔도 안성경찰서 (安城警察 署)에서는 지난이십사일에 형 사두명을 충남론산(忠南論山) 방면에 출장시키여 동군련산면 (連山面)에서 딸녀권 살인강도 한명을 톄포하야 지난이십륙일 에 안성서로압송하야 방금엄중 취됴를 하는중이라는데 그자 는대정팔년일월삼십일에안성군 양성면노곡리 (安城郡陽城面老 谷里)산속에서당시 새우젓장사 충남홍성군금마면송강리 (洪城 郡金馬面松江里) 황석연 (黃錫 淵)(三五)을살인하야[illegible] 칼로 [illegible] 현금륙십원을 강탈 도주한 주범(主犯)한모(韓某) (三○)이라는데 그외의 한명은방 금수색중이라더라(안성)

돈업는金庫를

엇던놈이훔쳐갓다

선산군검뎌축계 (善山勸儉貯蓄 契)에서는 지난이십삼일밤에수 제금고(手提金庫)를 나무로만 든 궤속에너허둔것을 멀어버렷 는데 다행히 현금은업섯스나 더금통장과기타중요서류가만히 들엇슴으로 당부자는 대단히심 려하는중이라는바 자세한내용 을들으면 그숙직실에서는 매야 숙직하는데 그날밤은 마츰볼일 이잇서 어듸를갓다가 오후열한 시에 도라와자고 그이튼날오전 열시에 김리사(金理事) 가출근 하야발견한후 즉시 경찰서에과 별하얏다는데경찰서에서는범인 수색에노력중이라더라(선산)

안해구하다가 자긔까지참사

지난이십사일 오후륙시경에 장 단군진남면 정동리 일권륙십구 번디백태성(長湍郡津南面 井洞 里一○六九番地 白泰成)(四五)의 부처량인이 림진강(臨津江)하 류에서 싸저죽엇는바 일대소동 이낫섯다는데 그죽은사정을 자 세히듯건대 당일권긔 백태성 의처 소진태(邵珍泰)(四四)가 이 웃집에가서 종일토록 술을먹음 으로 남편되는 백태성은녀자의 신분으로 술먹음을 책망하얏든 바 권긔소진태는 불평을품고자 긔집압 임진강하류에 싸짐으로 남편되는 백태성은 자긔안해를 구하고자 강에들어갓다가 실수 하야 무참히죽엇다는데 이사실 을 안동리사람들은 대소동을 이루어 즉시두시톄를 수색한 결과 남편되는 백태성은찻지못 하고 안해되는 소진태만구하야 자긔집에 업어다가 두엇든바 불과수십분이 못되야 고만죽엇 다더라(장단)

身病을悲觀自殺

병外지애속여박혀 생활조차곤난한데

지난이십륙일아츰에 수원소화 교뒤팔달산(八達山)소나무가지 에목을매여 자살한사람이잇섯 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유을듯 건대 권긔시톄는 일정한주소도 업고 수원군수원면매산리(水原 郡水原面梅山里)생선장사 고용 살이를 하고잇는 자긔아우리광 성(李光成)의집에부처잇는리광 봉(李光奉)(三四)으로서래권무 더 폐병에걸리여 무한한고생을 하야왓스나 원래생활의 도리조 차망연한 그아우도 이를치료하 야줄만한 길이업스매 병세는갈 사록 침중하야감으로 [illegible] (수원)

日校長의毒鞭 學生吐血昏倒

안중처가돈을훔쳐갓다고 결박한후무수히란타해

지난십오일 오전열시경 경북영 일군흥해공립보통학교 (慶北迎 日郡興海公普) 데오학년교실에 서는 보기에도 지긋지긋한참극 이 이러나 권학교공긔는매우긴 장하얏는데 이제 그자세한 내용 을들으면 그날아츰 그학교의수 업료밧은날임으로 모든학생은 수업료를 바치든중 동교오학년 갑조생리춘암(李春岩)이란학생 이 수업료로가저온 돈일원짜리 를 일헛다고울매 담임선생림병 태(林炳台)와교장종수마(宗秀 馬)량씨는 그일흔돈을 됴사키 위하야 전반학생으로하야금 가 저온돈을 내어노케한후 권긔돈 일흔학생리춘암을불러『네가가 젓든돈과가튼 돈이 잇거든발 하라』하고돈을경사한결과 그중 에서 권긔리춘암은 일원짜리한 장을집어들고『이것이내가가젓 든돈과갓다』고말하자교장종수 마는 곳그돈내여 노흔임자를사 실하야 오년생리창복(李昌福) 인줄 알게되자 닷자꼿자쌤을 치며 바른말을하라고 호령하얏 다 리창복은 결코 남의돈을 훔 친것이아니오 제가 가저온돈 인것을 변명하얏스되 그교장 은 그말에는 귀도기울이지안 코 교원림병태와 림작송(林作 松)을호령하야 리창복을결박한 후삼인이 합력란타하매 어린학 생은 모진매에견듸다못하야 피 를토하며 그자리에 혼도하얏는 데그때에야 그엽책상우에 주인 업는돈일원이 나타나서 리창복 의청백한것은 판명되엇다 이급 보를드른 영일군수와 포항경찰 서경무계주임,공의까지 현장에 출장하얏스며 피해학생은 십륙 일포항해오의원(海吳醫院)에입 원치료중인데 생명에는 관계가 업슬듯하다하며 학부형측과 흥 해청년회에서는 그대책을 강구 중이라더라(포항)

燐寸爆發로 乘降客驚愕

손해는만치안엇다

경의선사리원역 (京義線沙里院 驛) 에서는지난이십륙일오후네 시십일분에도착하는렬차 (一五 ○八號)에서 물어내는하물가운 데서불이일어나며 화약내가 정 거장을혼란케하야 승강객에게 만흔공구를 주게되엿다는데 그 불이 일어난원인은 모처로부터 당디마루사 운송뎜에 도착하는 청냥상자속에서 석냥가지가서 로마찰되여일어난 모양인데 손 해는만치안엇다더라(사리원)

劇團辯士가 藝妓와逃走

포주는현상수색

인천부룡리(仁川府龍里)에기권 번(龍鼓券番)의송죽(松竹)(二一) [illegible]

도야지도적놈

팔다가잡히엇다

강화군송암면선당리 (江華郡松 岩面新堂里)에원적을두고 일뎡 한주소가업시 방랑하는 박대순 (朴大順)(二二)은왕모(王某)(三三) 와공모한후 지난이십오일 오후 열한시경에 부천군다주면 사충 리(富川郡多朱面士忠里)오백오 십칠번디 오거섭(吳巨燮)의도 야지우리뒤에 뛰어드러가서 큰 양도야지[illegible] 고인천부내 리(內里)일백구십팔번디김재근 (金在根)의집에가서팔고자한다도야 지를사라고하든바김재근은그자 들의행동이 매우수상하야 소관 파출소(派出所)에 고발하엿든 바 순사는 그자들을곳데포하야 취됴를하야본결과사실을자백하 얏다더라(인천)

다리에 중상을당하고 방금김 천도립병원에서 치료중이라는 데 그녀자는본긔를 경북김천군 구소로면 [illegible](慶北金泉郡 [illegible])에둔권흥이 ([illegible])(三)로그외남편되는[illegible] 마건부터 지톄(知悌)에 옷가튼 첩을두고 자긔는도라보지도 안 코 몸에병은중하고 나날이 생 활난은심하야 도저히 살어갈 미가업슴으로 이세상 모든것을 비관하고 그만긴긔와가튼 참혹 한짓을 하얏다는데 생명이 매우 위독하다더라(김천)

强盜出現 楊口東面에

청년세명연대 종적은묘연중

강원도 양구군동면덕곡리 (江原 道楊口郡東面德谷里)김룡보(金 龍甫)의집에는 지난십팔일밤에 청년세사람이 드러와서 돈을내 노호라고 주인을결박하고 위협 하야 쌀두말 현금이원오십전베 다섯필을 탈취하야 가지고도주 하얏는데 범인은 미상이나이금 보를드른양구 경찰서원은활동 수색중이라더라(춘천)

駐在所에서 拳銃情死

일순사부장과 료리뎜창기가

전남려수군화양면주재소 (全南 麗水郡華陽面駐在所)에 순사부 장으로 근무하든 적장(的場)이 는 지난이십륙일에 려수동정해 월루(麗水東町海月樓)라는일본 료리점에잇는 작부 송자(松子) (三三)와 화양면주재소(華陽面駐 在所)에서 권총으로두방식이나 노코 또겸하야 독약(毒藥)外지 먹고 정사(情死)를하엿는데 두 사람은 적장(的場)이가 려수본 서(麗水本署)에잇슬때부터서로 정을통하고지내다가뜻과가티되 지안는세상人일을한탄하고그와 가티정사를한것이라더라(려수)

生活難으로 七十翁自殺

살아갈길이망연해

이십칠일 오후네시경에 시외구 룡산대도뎡(市外舊龍山大島町)○ 팔십구번디 김화순(金化淳)(六 七)이란 로인은생활난으로 살아 갈길이 망연하야 세상을비관하 든끗헤 양잿물(苛性曹達)을먹 고무참히세상을써낫다더라

光州各團體에 集合一切禁止

메이데이는물론 기타싸지당분간

광주(光州)경찰서 에서는 당디 각단데대표자들을 지난 이십칠 일오후한시에 소집하야오는 매 『메-데-』에는 옥내옥외를 물론하 고 엇더한형식으로든지 집회를 금지한다하엿스며 기타의 일은 집회도 당분간은 금지한다고하 엿다더라(광주)

金剛山에 一名强盜

범인전부톄포

강원도금강산신계사 (江原道金 剛山神溪寺)에는 지나간이십륙 일밤에권총을가진자두사람이칩 입하야자고잇는종직(從職)에게 권총을 견우며위협하고금품(金 品)을강탈도주하엿는데 이급보 를접한소할고성(高城)경찰서에 서는즉시비상소집을 하고 범인 수색에 노력한결과 익일(翌日) 에이르러한명은고성(高城)읍내 에서잡고 또한명은 장전(長箭) 에서데포하엿다더라(원산)

大邱警察部로 金朴兩氏押送

사건내용은아즉비밀

경북경찰부고등계형사가영주디 방에와서 대활동중에 잇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지난이십 오일에 영주유림의 대표뎍인물 인 김동진(金東鎭)(五六)씨와 영 주인쇄소경영자 (榮州印刷經營 者)박제형(朴齊衡)(四四)씨를 구 인하야 대구로압송하야 갓다는 데 내용은아즉 비밀에부침으로 자세히알수는업스나 탐문한바 에의하면,유림단사건의 련루인 듯하다더라(영주)

男便을怨恨코 鐵道에投身

즉상만되얏스나 위독중에잇는중

지난이십륙일 오전팔시반에 경 북천옥산역(慶北線玉川驛)으로 부터 김천(金泉)을 향하고진행 하야 나오는 데일번렬차에나히 삼십이된듯한말쑥한 엇던녀자한 아가 궤도로 뛰여들어 머리와

青年一名護送

청진에서단천으로

함북청진부신암동 (咸北淸津府 新岩洞)에잇는원압상회주인(原 岩商會主任) 김중근(金重根)씨 는 일권에단천(端川)에 갓다가 지난이십오일밤에도착하엿는데 긔선에서상륙한자를 시외데경 찰서에서검속하엿다는데이십륙 일에 단천으로 압송하엿다하며 내용은비밀에부치더라(청진)

暮春九月山에 때아닌白雪

처음보는희귀한일

은률(殷栗)에는지난이십오일에 떠뜻하든 일긔가 별안간치운저 울일긔로 변하여 치며 비가오는 시간계속하여다리더니 어느듯구 월산 (九月山) 에는때아닌설화 (雪花)가 만발하엿는다 은률에 서는처음보는일이라고하더라 (은률)